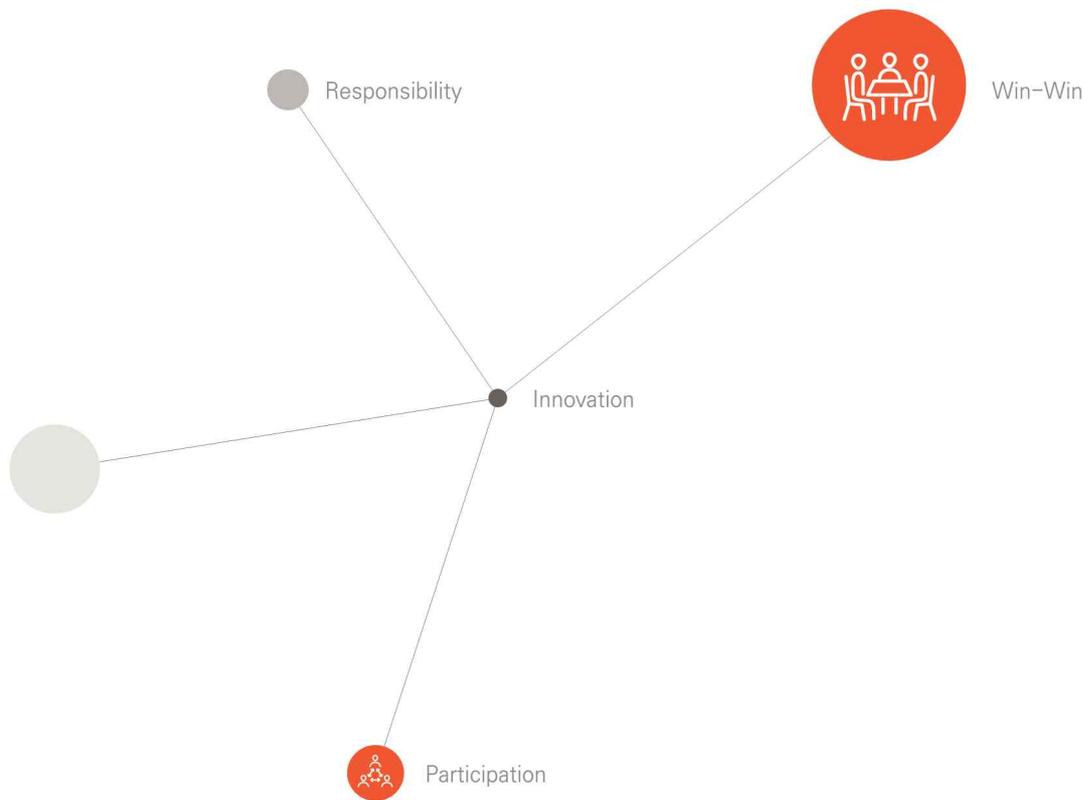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6월



목 차

1. 스페셜 이슈	3
2. 해외시장 동향	9
3. 국내시장 동향	18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스페셜 이슈



1. UIA: 2021 국제회의 개최실적 보고서

가. 국제협회연합(UIA)

- 국제협회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단체와 국제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국제기구 및 협회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범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UIA가 매년 6월 경 발간하는 ‘국제회의 개최실적 보고서(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는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발표하는 국제회의 개최통계와 함께 MICE업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개최실적 보고서로 인정받고 있음

1) 2021 국제회의 개최실적 보고서¹⁾

- UIA는 국제회의 집계 시 국내회의,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종교·정치·상업적 목적의 모임, 스포츠 이벤트, 특정 그룹이나 집단의 내부 회의 등을 제외한 뒤 Type A, B, C 세 가지 종류의 국제회의로 분류하여 집계하며, 이 중 서울 개최실적 집계 시 활용되는 기준은 Type A + B임
- 한편 UIA는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집계하는 기준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대면 회의가 사실상 개최되기 매우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형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 이외에 버추얼(온라인), 하이브리드(오프라인+온라인) 형태로 개최된 행사들 역시 국제회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부터 해당 조건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표 1> UIA 국제회의 분류 기준

기관명		총족 기준				
		주최자	회의기간	전체 참가자수	해외 참가자비율	기타
UIA (국제협회 연합)	Type A	국제기구 주최·후원	1일 이상	50명 이상 *	-	-
	Type B	국내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지부 주최·주관	3일 이상	300명 이상 또는 전시회 동반	전체 참가자의 40% 이상	참가국 5개국 이상
	Type C		2일 이상	250명 이상 또는 전시회 동반		

* 참가자 수 기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를 집계함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있음

1) 본 고는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63rd Edition’(UIA, 202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나. 주제별 개최통계 분석

1) 2021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통계

- 2021년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경우 Type A 회의를 기준으로 총 6,473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231건 증가해 52.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2,472건에 비하면 약 51.9% 수준에 그쳐 국제회의 업계가 아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최근 10년간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2012~2021)

개최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최건수	12,192	12,360	12,608	11,634	10,449	9,429	10,774	12,472	4,242	6,473
증감건수	△12	168	248	△974	△1,185	△1,020	1,345	1,698	△8,230	2,231
증감률(%)	△0.1	1.4	2.0	△7.7	△10.2	△9.8	14.3	15.8	△64.6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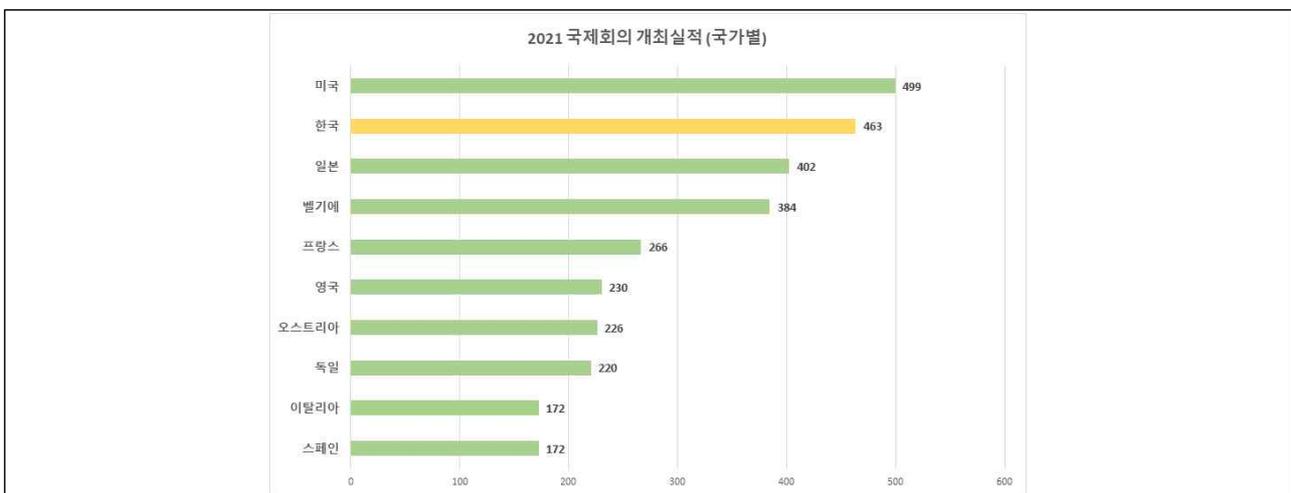
[그림 1]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2012~2021)

2) 2021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통계

- 한편 2021년 한국은 Type A 회의를 기준으로 총 463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2위, 아시아 1위의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3건 증가한 수치로 78.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지만 2019년과 비교 시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편 1위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49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국제회의 개최실적 수준이 가장 많이 회복된 국가는 일본(19 대비 71.4% 수준), 미국(19 대비 68.4% 수준) 등으로 조사되었음
- 국제회의 개최순위 상위 10개국을 대륙별로 분류할 경우 유럽 국가는 총 7개국(벨기에,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이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총 2개국(한국, 일본), 북미 국가는 1개국(미국)임

<표 3> 2019~2021 국가별 개최실적 랭킹(Type A 기준)

순위	국가	2021	2020(순위)	2019(순위)	전년 대비 증감수(증감률)
1	미국	499	401 (2위)	730 (4위)	98건 증가(+24.4%)
2	한국	463	260 (4위)	958 (3위)	203건 증가(+78.1%)
3	일본	402	233 (5위)	563 (6위)	169건 증가(+72.5%)
4	벨기에	384	361 (3위)	969 (2위)	23건 증가(+6.4%)
5	프랑스	266	158 (8위)	594 (5위)	108건 증가(+68.4%)
6	영국	230	165 (7위)	413 (8위)	65건 증가(+39.4%)
7	오스트리아	226	142 (10위)	371 (10위)	84건 증가(+59.2%)
8	독일	220	167 (6위)	410 (9위)	53건 증가(+31.7%)
9	스페인	172	95 (12위)	490 (7위)	77건 증가(+81.1%)
9	이탈리아	172	60 (15위)	295 (13위)	112건 증가(+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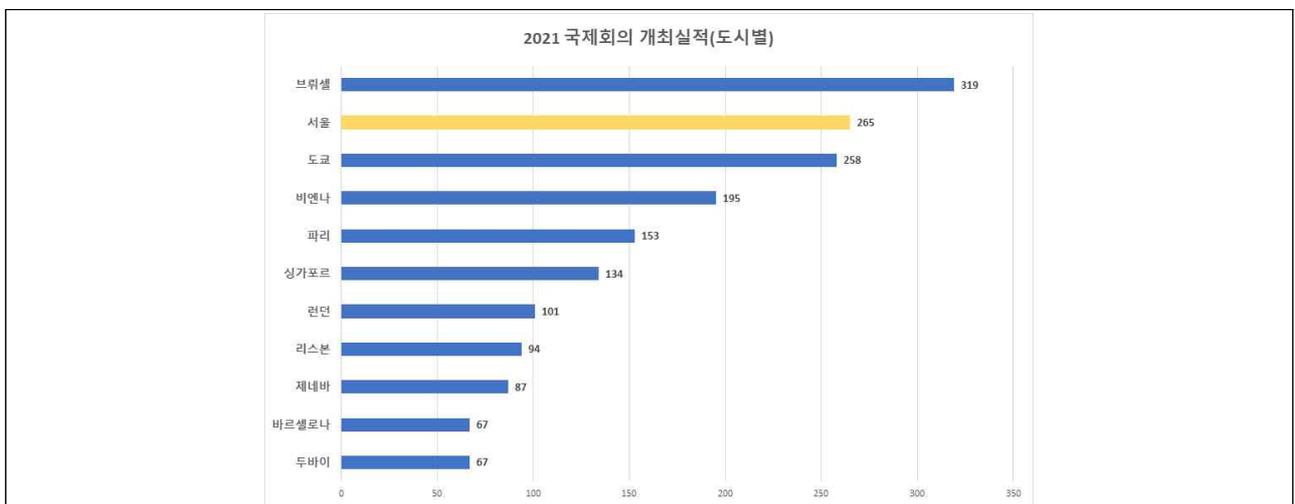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2021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3) 2021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통계

- 한편 Type A + B를 기준으로 한 2021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통계에서 서울은 총 26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2위, 아시아 1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지켜오던 세계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하였음
- 한편 1위는 전년 대비 10.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1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브뤼셀이 차지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싱가포르의 2021년 실적에서 기존 대비 82.8% 감소한 134건의 개최실적을 기록하며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음
- 아울러 전년 대비 395%의 급상승세를 보인 리스본, 코로나19 이전 대비 순위를 15계단 끌어올린 두바이 등의 사례를 통해 도시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및 하이브리드·온라인 회의 기술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표 4> 2019~2021 도시별 개최실적 랭킹(Type A + B 기준)

순위	국가	2021	2020(순위)	2019(순위)	전년 대비 증감수(증감률)
1	브뤼셀	319	290 (2위)	963 (2위)	29건 증가(+10.0%)
2	서울	265	150 (3위)	609 (3위)	115건 증가(+76.7%)
3	도쿄	258	122 (4위)	305 (6위)	136건 증가(+111.5%)
4	비엔나	195	109 (5위)	325 (5위)	86건 증가(+78.9%)
5	파리	153	61 (8위)	405 (4위)	92건 증가(+150.8%)
6	싱가포르	134	780 (1위)	1,205 (1위)	646건 감소(-82.8%)
7	런던	101	101 (6위)	217 (8위)	변동 없음
8	리스본	94	19 (27위)	198 (9위)	75건 증가(+394.7%)
9	제네바	87	77 (7위)	173 (13위)	10건 증가(+13.0%)
10	바르셀로나	67	44 (9위)	160 (14위)	23건 증가(+52.3%)
10	두바이	67	30 (15위)	75 (25위)	37건 증가(+123.3%)



[그림 3] 도시별 2021 국제회의 개최실적

4) 서울 내 국제회의 개최 유형 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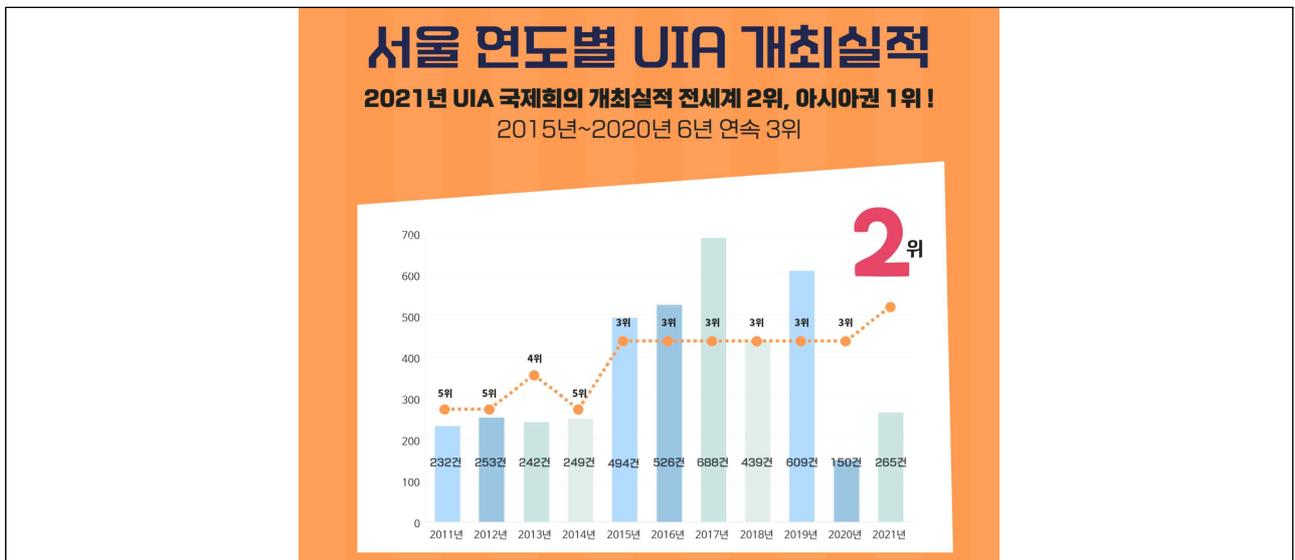
- UIA에서 발표하는 통계보고서에는 대면 행사에서부터 하이브리드(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비추얼) 등 다양한 개최형태가 모두 집계되어 있으나, 개최실적에 대한 세부 개최형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보고서 대신 UIA 홈페이지에서 국제회의 개최정보를 등록하고 개최실적을 집계하는 데 활용되는 ‘국제회의 캘린더(International Congress Calendar)’를 기반으로 개최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국제회의 캘린더에 기재된 회의 중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는 총 279건으로 검색되며, 그 중 대면 행사(오프라인)은 17건, 하이브리드는 58건, 온라인은 177건,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행사는 27건으로 나타남
 - 대면 행사 건수는 전년 대비 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이브리드 개최의 경우 16건 감소했으며, 온라인 개최가 137건 증가해 342.5%의 증가율을 기록,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인해 온라인 개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표 5> 서울 국제회의 유형별 분류

	전체*	대면행사	하이브리드	온라인	정보없음**
2021년	279건	17건 (6.1%)	58건 (20.8%)	177건 (63.4%)	27건 (9.7%)
2020년	159건	15건 (9.4%)	74건 (46.5%)	40건 (25.2%)	30건 (18.9%)
전년비 (유형별 건수 기준)	120건 증가 (+75.5%)	2건 증가 (+13.3%)	16건 감소 (-21.6%)	137건 증가 (+342.5%)	3건 감소 (-10.0%)

* 국제회의의 캘린더 기재 건 중 취소·연기·개최지 변경 등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제외하였음

**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행사의 경우 개최 여부는 사실로 파악되었으나 개최유형 및 참가자 정보 등이 파악되지 않은 행사, UIA는 연중 추가 업데이트 추진 예정



[그림 4] 서울 연도별 UIA 개최실적 및 순위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MICE산업 조기 회복을 위한 '인스파이어 글로벌 2.0' 프로그램 추진

- 싱가포르, MICE 산업 조기 회복을 위해 국제 MICE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인스파이어 글로벌 2.0 (INSPIRE Global 2.0, In Singapore Incentives & Rewards 2.0)'을 추진
- 싱가포르는 2021년 20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여 약 4만 9,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들과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인해 1분기에 이미 150여 개의 행사를 통해 3만 7,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전년보다 훨씬 빠른 MICE 산업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인스파이어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결정
- 인스파이어 글로벌 2.0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MICE 관련 단체에 대해 질 높은 식사, 관광명소에서의 주제별 투어 및 팀 빌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체험활동의 경우 약 80여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질 예정
- 또한 센토사의 최신 향수 명소 '센토피아(Scentopia)', 다양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그룹 '원그룹(1-Group)', 웰니스를 주제로 팀 빌딩 프로그램을 풀어낸 요가 센터 '어반 요기스(Urban Yogis)' 등을 신규 파트너사로 지정하고, 중화권 및 오세아니아, 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온 쇼핑 애호가들을 위한 쇼핑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음
- 싱가포르관광청, 직접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MICE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경 규제·입국 완화 시기에 MICE 고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각종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 **싱가포르: 샌즈 익스포(Sands Expo), 아시아 최초 '건강 베뉴 인증' 취득**

-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맞춰 싱가포르 샌즈 익스포(Sands Expo)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건강 베뉴 인증(Healthy Venue Accreditation)에서 골드 등급을 취득함
- 건강 베뉴 인증은 베뉴의 웰니스 옵션과 웰니스 운영 방침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항목은 세계 비만 연합(World Obesity Federation)이 제공하는 식품영양, 신체적 활동, 종사자 및 고객 웰빙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됨
- 건강 베뉴 인증의 등급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샌즈 익스포는 가장 높은 골드 등급을 취득하였으며 골드 등급을 취득한 베뉴는 전 세계 3곳뿐임
- 건강 베뉴 인증 취득을 위해 샌즈 익스포(Sands Expo)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함
 - 행사 주최자에게 저당, 저지방 유제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
 - 식음료 제조 시 기름, 설탕, 소금 등을 30% 적게 사용하고 요일별 건강 음료 옵션을 제공
 - 스탠딩 행사, 운동 및 휴식 목적의 시설(공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
 - 행사 피로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활동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함
 - 스카이프크 요가,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을 행사 프로그램으로써 활용함
-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의 전시컨벤션 부문 부사장 옹위민(Ong Wee Min)은 웰니스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념화하고 선별적 종사자 교육과 건강식·웰빙 옵션 제공을 실시해 최고 수준의 환대를 제공해 나갈 계획



[그림 5]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전경

나. 미주 지역

■ 미국: 마켓플레이스 이벤트(MPE) 미국의 홀리데이 쇼(Holiday Show)들 인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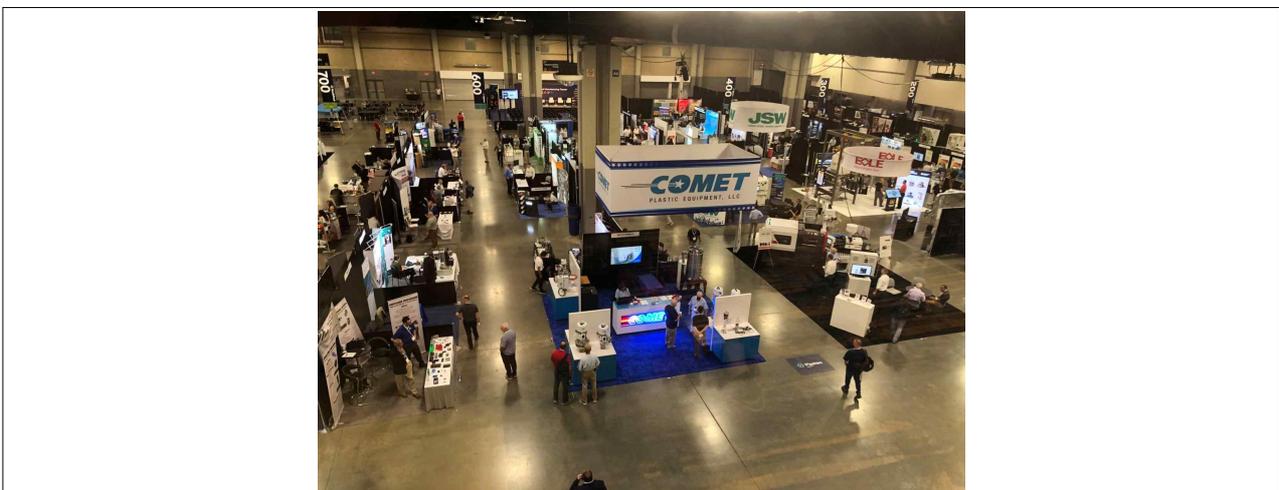
- 북미 최대의 B2C 행사 주최자인 마켓플레이스 이벤트(Market Place Event, MPE), 3개의 홀리데이 쇼(Holiday Show) 운영권 인수와 2개의 신규 쇼 개막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북미지역 이벤트 시장 장악력 강화를 추진
- 인수합병된 3개의 홀리데이 쇼(Holiday Show)는 다음과 같음
 - 6월 15일 마켓플레이스 이벤트(MPE)는 매년 5일 간의 행사를 통해 500여 개의 전시업체와 30,000명의 참가자가 참가하는 동부지역 최대의 홀리데이 쇼 '펜실베이니아 크리스마스 & 기프트 쇼(Pennsylvania Christmas & Gift Show)'를 주최하는 주최사와 쇼 자체를 동시에 인수하였음
 - 한편 지난 5월에는 매년 500여 전시업체 및 20,000명의 참석자차 모이는 콜로라도 최대의 연휴 행사 '콜로라도 크리스마스 기프트 쇼(Colorado Country Christmas Gift Show)'를 인수했고, 4월에는 600여 전시업체 및 35,000명이 참가하는 중서부 최대의 행사 '클리블랜드 크리스마스 커넥션(Cleveland Christmas Connection)'를 인수함
- 또한 마켓플레이스 이벤트 측은 '북미 지역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휴 기간 동안 연휴 행사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나 마찬가지로'라고 언급하며 2022년에는 '오클라호마 크리스마스 쇼(Oklahoma Christmas Show)'를, 2023년에는 '애틀랜타 홀리데이 부티크(Atlanta Holiday Boutique)'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



[그림 6] 펜실베이니아 크리스마스 기프트 & 쇼 행사 사진

■ 미국: 'IME South' 6월 14일~16일 샬럿 컨벤션 센터(Charlott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

- 디지털 공장 및 스마트 공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미국의 남동쪽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IME South'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샬럿 컨벤션 센터(Charlott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2022 IME South에는 310개의 업체가 전시를 실시하였으며 약 2,300명의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 '제조 산업 기술'을 주제로 의료 설계 및 제조(Medical Design & Manufacturing, MD&M), 자동화 기술 전시(Automation Technology Expo, ATX), 디자인과 제조(Design & Manufacturing, D&M) 등 총 6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진행하였음
- 특히 이번 전시에는 미국 우주산업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SPACE-X와 Amazon, 3M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 업체의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산업의 미래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함
- IME South 총괄 책임자 스티브 에버리(Steve Everly)는 '이번 전시는 우주산업, 의료·의학, 플라스틱, 자동화 기술을 포함한 제조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고 밝히며 '절반 이상의 참가자들이 각 회사의 의사결정자인 만큼 전시기간 동안 신규 파트너십, 수많은 거래 등이 체결됐다'고 밝힘
- 한편 다음 전시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샬럿 컨벤션 센터(Charlott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임



[그림 7] IME South 행사 현장

■ 미국: 국제 전시·이벤트 협회(IAEE), 세계 바이오리스크 자문위원회(GBAC)과 파트너십 확대

- 국제 전시·이벤트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xhibitions and Events, IAEE), 전시 운영 인증서(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CEM)를 발급할 때 ‘감염병 인식 교육’을 추가하기 위해 세계 바이오리스크 자문위원회(GBAC)와의 파트너십 확대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시 운영 인증(CEM)의 학습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보안 및 위기관리 모듈’ 부분에 감염병 전염 방식, 감염병 전염 경로 등 감염병과 관련한 기본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국제 전시·이벤트 협회(IAEE) 회장 데이비드 뒤부아(David DuBois)는 ‘추가된 교육내용이 전시 및 이벤트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전염병을 관리하는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국제 전시·이벤트 협회(IAEE)이 발급해 주는 전시 운영 인증서는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시 수료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세계 바이오리스크 자문위원회(GBAC)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염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직장 내 감염병·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
 - 감염병 위험 평가 및 예방을 위한 규정 준수, 개인 보호장구 착용 등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xhibitions and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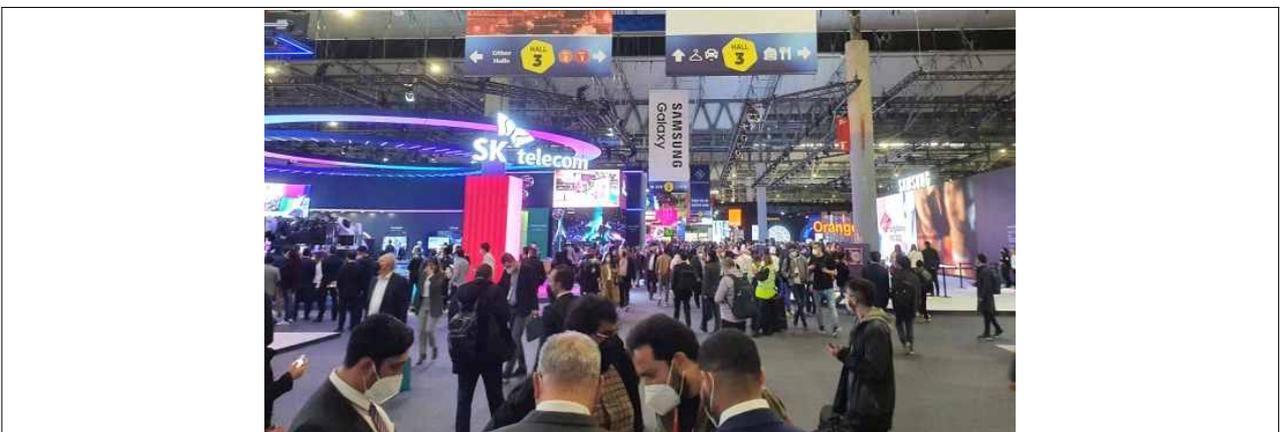


[그림 8] 좌: 국제전시이벤트협회 로고, 우: 세계바이오리스크자문위원회 로고

다. 구미주 지역

■ 바르셀로나: 2030년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지속 개최 확정

-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2030년까지 매년 개최할 예정
-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매년 2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기술 박람회 중 하나로, 1987년 ‘유럽 디지털 셀룰러 라디오 콘퍼런스’로 시작해 모바일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지금의 행사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음
- 한편 해당 행사는 2006년 개최지를 프랑스 칸에서 바르셀로나로 변경했으며, 이후 바르셀로나는 2011년·2018년 유치 공개경쟁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하며 2024년까지 유치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2022년 6월 이루어진 GSMA 이사회에서 2030년까지 MWC 개최 도시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바르셀로나 측은 장기간 동안 해당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모바일 세계수도(Mobile World Capital)’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당 타이틀과 초대형 행사 유치 경험이 현재 바르셀로나의 MICE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재계약이 바르셀로나의 MICE 개최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올해 3년 만에 개최된 MWC 2022는 바르셀로나 그란 비아 전시관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1,500개 기업 6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초대형 행사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하였음



[그림 9] MWC 2022 행사장 전경

■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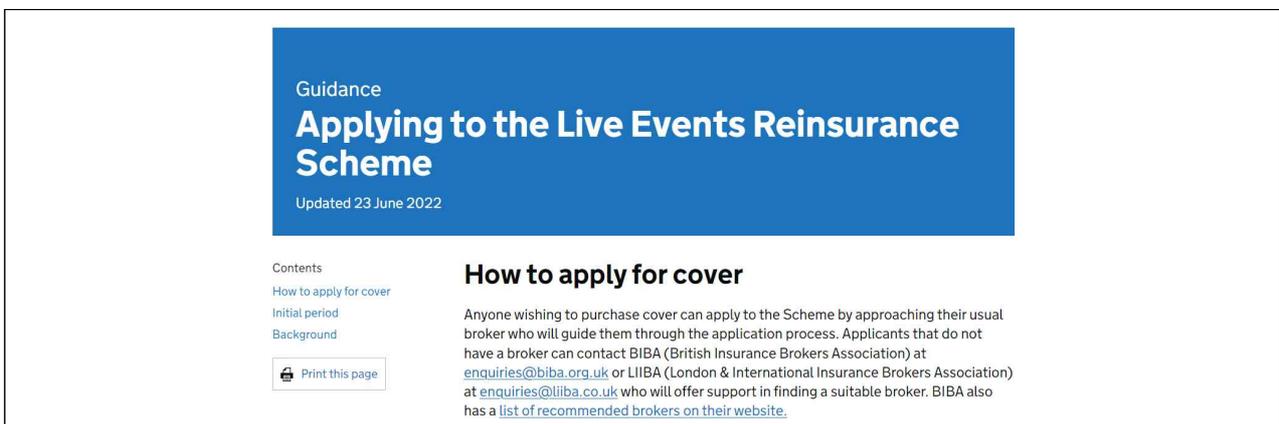
- 마드리드, 202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마드리드 IFEMA 페어그라운드에서 개최, 총 42개국의 총리·대통령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최고위급 관료 다수가 참석하였음
 -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라고도 불리며, 1949년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창설된 상호 방호 집단 군사 동맹 체계의 조직으로 유럽 및 북미 국가 3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속해 있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음
-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NATO 회원국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정상들 또한 참석하였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구상한 NATO의 ‘10개년 청사진(10-Year Blueprint)’ 이후 변화한 국제 정세에 따라 NATO가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움직임을 취할 것인지 전략적 기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동맹국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 to Allies)’이라고 규정하였음
- 또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핀란드 및 스웨덴이 신청한 NATO 가입에 대해 줄곧 반대해오던 튀르키예가 반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가입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NATO의 동부 지역 병력 규모를 현재 4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



[그림 10] NATO 사무총장-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기념촬영

■ 영국: 라이브 이벤트 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영국 정부, 지난 2021년 9월 입안하여 실시해 온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계획 (Live Events Reinsurance Scheme)’을 통해 지원한 행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6월 발표하였음
 -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계획: 음악·스포츠 행사 및 축제, 국제회의 및 비즈니스 이벤트 등의 라이브 이벤트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및 연기 시 발생하는 손해액 중 일부를 상쇄해 주는 보험제도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는 해당 지원정책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5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행사 중 총 168건의 이벤트의 손실을 상쇄하거나 손해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지원 액수는 약 1억 1,700만 파운드(한화 약 1,8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소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해당 보험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었으며, 미개최 위기를 맞이한 행사 추진 정상화에 기여하여 약 280만 명의 행사 참가자를 추가 발생시키는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분석
- 한편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해당 계획이 구체적으로 라이브 이벤트 산업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약 7억 5,0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1,813억 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며, 법안 발효 직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지원효과 규모는 약 4억 파운드(한화 약 6,3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림 11] 영국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계획’ 등록 페이지 화면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국내시장 동향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제37회 서울국제관광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6월 23일~26일 개최

- 서울국제관광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체부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 등이 후원하는 서울국제관광전, ‘다시 만난 여행, 다시 만난 자유’를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 개최
-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는 스페인, 일본, 괌 등 40여개국에서 30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4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UNWTO, 국제관광인포럼, 울산광역시 주관하는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세계적 관광박람회의 면모를 보여주었음
- 관광홍보전은 국내관광홍보존, 해외관광홍보존 두 구역을 분류하여 진행하였으며, 특별행사로는 온·오프라인 인바운드 B2B 트래블마트, 여행토크쇼, SITF 관광상품전 라이브커머스, 관광설명회, 여행 인플루언서 ‘청춘우리’의 토크콘서트, 취·창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세션들을 진행하였음
- 또한 해당 행사에서는 전라남도(영암·강진·여수·목포·순천 등 10개 시군)가 최우수 기획상과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고, 울산시는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경기 부천시와 경북 고령군은 최우수 콘텐츠상을 각각 수상하였음
- 주최측, 행사 진행 기간 동안 매일 최소 6,000명, 최대 1만 4,000여 명이 행사를 방문했으며, 총 관람객 수는 내국인 3만 5,000여 명, 외국인 1,500여 명을 합쳐 총 3만 7,000명이 이번 행사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



[그림 12] 서울국제관광전(SITF) 개막식 현장

■ 경기도: 2022 경기 MICE 온택트 데이 개최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0년부터 도내 MICE 산업 및 관련 지원제도, 신규 시설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소개하기 위해 진행해온 ‘경기 MICE 온택트 데이’ 행사를 6월 8일 광명 IVEX 스튜디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였음
- 이번 2022 경기 MICE 온택트 데이에는 전국 학협회 및 MICE업계 관계자 1,000여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GREEN ON 경기’, ‘VENUE ON 경기’, 경기 MICE 네트워킹 상담회, 현장 팸투어 등이 진행되었음
- 우선 GREEN ON 경기 프로그램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수원컨벤션뷰로·고양컨벤션뷰로 등이 2022년 유치개최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그린 MICE 가산점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VENUE ON 경기 프로그램에서는 가평의 마이다스호텔&리조트, 광명 IVEX 스튜디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등 지역 내 신규 베뉴를 소개
- 한편 경기 MICE 네트워킹 상담회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컨벤션뷰로, 고양컨벤션뷰로 등 공공부문과 다수의 베뉴 담당자, 셀러 등이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장 팸투어로는 테이크호텔 탐방, IVEX 스튜디오 투어 등이 진행되었음
- 특히 이 행사에서 경기도는 2023년 ‘2023 대한세포병리학회 학술대회’, ‘2023 국제지능형 자율시스템 학술대회’, ‘2023 국제 연소화학반응 시스템공학 학술대회’ 등 고부가가치의 의학·공학 분야 국제학술대회 3건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계 관계자 1,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그림 13] 2022 경기 MICE 온택트데이 현장

■ **울산: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

- 울산광역시, 문체부의 후원 아래 UNWTO, 울산광역시,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코트파가 주관하는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를 서울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
 - 6월 23일~24일 일정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5일~26일 일정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진행되었음
- 이번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는 UNWTO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을 비롯해 몰디브 관광부 장관,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아시아 디렉터 등 총 16개국에서 관광과 관련한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참관국가로 괌,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음
- 2일차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울산에 도착한 참가단 일행은 울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빈구대 암각화 투어를 진행했으며, 3일차에는 리더스 포럼을 진행, 이란 출신의 석학 카잠 교수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몰디브 관광부 장관, 인도네시아 관광부 차관 등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관광정책 및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였음
- 또한 울산관광설명회를 진행하여 울산관광재단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를 소개하고 울산 관내 관광기업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 4일차에는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대왕암공원 투어 등을 진행하였음
- 울산시,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 이번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가 울산에서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에코 및 힐링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총평



[그림 14]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막식 현장

■ 부산: 부산관광공사, '2022 부·울·경 MICE 팸투어' 개최

- 부산관광공사,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2022 부·울·경 MICE 팸투어'를 개최하고 관광회복 시기 MICE 행사 유치 및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에 박차
- 이번 팸투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부·울·경 관광 MICE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부산관광공사의 주도 하에 울산관광재단, 경남관광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기업인센티브 단체 유치 추진을 목표로 기획하고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형 기업인센티브 전문여행사 대표 20여 명으로 구성된 팸투어단이 22일 울산에서의 일정을 시작으로 23일 부산, 24일 경남 통영을 거치며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남부권 관광벨트를 체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메뉴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환경에 적합한 신규 콘텐츠를 소개
- 특히 부산의 경우 신규 관광시설인 부산롯데월드,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홍보하고 지역 내 우수 유니크메뉴로 주목된 부산 엑스더스카이, 뮤지엄원 등을 답사하며 부산이 비즈니스-레저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블레저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그랜드조선 부산 호텔에서는 부산 MICE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산의 주요 MICE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여행사 대표단과 인센티브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논의를 진행하였음
- 부산관광공사, 국내 대형 기업인센티브 전문여행사의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팸투어를 통해 부·울·경 관광 MICE 재도약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



[그림 15] 부울경 관광설명회 행사장 전경

■ 부산: 부산,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위한 ‘2030 월드엑스포’ 현지 홍보로 유치 본격화

- 부산시, 지난달 말 발표된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 5회 차 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6곳 중 27위를 기록함
 - SCI는 영국에 있는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지엔(Z/Yen)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도시 스마트지수로,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취리히, 코펜하겐이 각각 3, 4, 5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12위, 상하이가 20위, 베이징이 22위, 서울이 24위에 오름
-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는 6월 20~21일 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맞춰 프랑스와 한국에서 각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
 - ‘세계박람회’는 월드컵·올림픽(하계)과 함께 지구촌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며,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됨
- 부산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200개국에 참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외에서 약 3,480만명이 부산을 방문하고 61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p>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기간 : 2030년 5월 1일~10월 31일 (184일간) · 개최 장소 : 부산항 북항 일원 266만㎡ · 방문 인원 : 3480만명 · 경제 파급 효과 : 61조원 <p><small>*방문 인원, 경제 파급 효과는 예상치, 자료=부산시</small></p>
---	---

[그림 16] 좌: 부산의 야경, 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예상치)